

제19회 평창대관령음악제 제작기

글. 박은지 KBS 라디오기술국 음향감독



그림 1. 알펜시아 콘서트홀 전경 / 출처: 알펜시아 콘서트홀 공식 홈페이지

서울이 30℃를 웃돌던 7월, 맑고 시원한 대관령 산정의 공기와 아름다운 선율이 함께하는 곳에서 일주일간의 출장은 필자의 기대감을 한껏 불러일으켰다. 음악제에 앞서 6월 말 사전답사를 다녀와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시스템을 세팅해 사전 테스트를 완벽히 마친 후 평창으로 향했다.

제19회 평창대관령음악제, ‘마스크(MASK)’

이번에 다녀온 제19회 평창대관령음악제는 7월 2일부터 23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콘서트홀 일대에서 열렸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청소년 시절 이 음악제에서 꿈을 키웠고, 지난 6월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해 이름을 알린 임윤찬이 2년 전 손열음 예술감독과 메인 콘서트 무대를 선보이기도 한 저명한 음악제이다. 이번 평창대관령음악제는 손열음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멜니코프, 이진상,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 카리사 추, 트리오 반더러 등 국내외 정상급 클래식 음악가들이 참여했다. 또한 해외 우수 악단에서 재직 중인 한국인 연주자들로 구성돼 화제를 일으켰던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모차



그림 2. 제19회 평창대관령음악제 메인 포스터

르트 협주곡의 밤'이라는 타이틀로 이틀간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이번 음악제는 엔데믹에 걸맞은 성대한 축제로 최장기간, 최대규모로 열렸다. 18회의 메인 콘서트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과 정상급 연주자들이 직접 지도하는 마스터 클래스 등 다채로운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졌다.

올해 음악제의 주제는 '마스크(MASK)'였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보호할 수 있고, 서로를 연결할 수도 있다. 이처럼 마스크는 사람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손열음 예술감독은 '작곡가, 연주가 등 다양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음악제를 만들겠다'는 본인의 생각과 비슷해 이번 음악제의 주제를 '마스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KBS Classic FM 생중계 및 방송 제작

10여 년 전 음악제 초창기 때부터 KBS Classic FM 라디오 채널을 통해 음악제 메인 콘서트를 생중계해왔다. 올해도 음악제 기간 중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저녁 7시 30분에 KBS Classic FM과 평창대관령음악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메인 콘서트를 생중계했다. 또한 공연 이후 KBS 1TV 채널을 통해 실황녹화방송이 방영되었다.

이번 방송 제작은 KBS 라디오기술국과 KBS 춘천총국 기술국 중계팀이 협업해 음향제작, 라디오 생중계, TV 영상 제작 및 유튜브 스트리밍을 진행했다. 콘서트홀 내 컨트롤 룸에 음향제작팀, 객석 후면 구역에 라디오 중계팀, 외부 TV 중계차에 춘천 TV중계팀이 부스를 마련해 제작했다. 필자가 속한 음향제작팀은 스테이지 위 공연 실황을 수음하고 믹스해 최종 2트랙 소스를 제작해 라디오 & TV 중계팀에 각각 주·예비 소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레코딩해 온 개별 오디오 소스는 향후 믹스다운 및 마스터링 작업을 거쳐 공연 실황 음반 및 EBU(European Broadcasting Union, 유럽방송연맹) 제출용 음원 제작을 할 예정이다.



그림 3. 라디오 중계 부스 (왼쪽부터 PD, MC, 라디오 중계 음향감독)



그림 4. 음향제작 부스



그림 5. TV 중계 부스 (왼쪽부터 기술감독, PD, 스코어리더, AD, 음향감독)

음향 제작시스템 구성

전체 시스템 구성

음향 제작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번 음악제에는 총 8개의 스테이지 마이크를 사용했다. 스테이지 월박스과 컨트롤룸 내 시스템 랙의 마이크 라인 패치가 기존에 구성되어 있어서 시스템 랙에서 마이크 소스를 바로 뽑아 사용할 수 있었다. 입력받은 마이크 신호는 프리앰프(MILLENNIA HV-3D)와 스플리터(KLARK TEKNIK DN1248)를 거쳐 메인 믹서(TAMURA AMX-16), 8트랙 오디오 인터페이스(UAD APOLLO 8p), 8트랙 멀티트랙 레코더(TASCAM HS-P82)로 분배했다.

라디오 생중계와 TV 중계차 음향 소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메인 믹서 아웃풋과 예비 믹서로 사용한 Pro Tools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웃풋을 각각 주·예비로 전송했다. 또한 Pro Tools를 메인 레코더로, 8트랙 멀티트랙 레코더를 예비 레코더로 사용해 주·예비 녹음 시스템을 구성했다. 리버브 장비로는 Lexicon L300을 사용해 공간감을 더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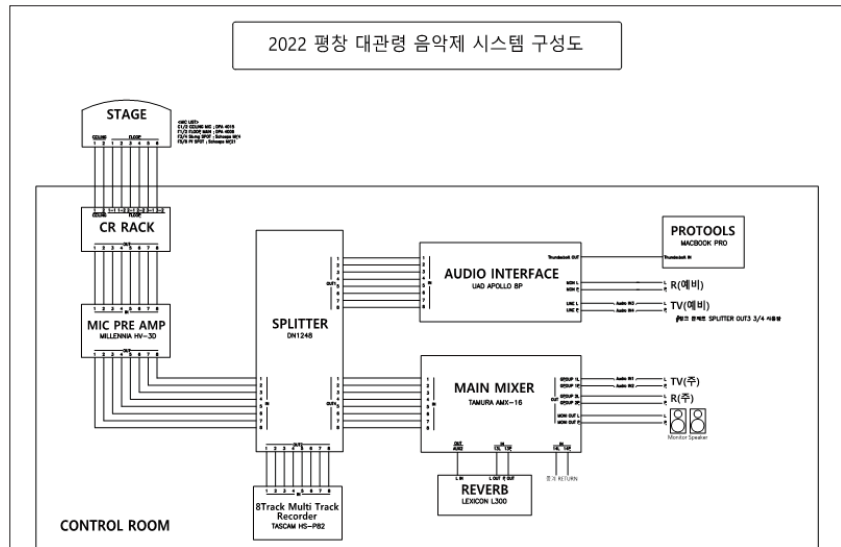


그림 6. 음향 제작시스템 구성도

마이크 셋업

콘서트홀 내 스테이지는 총 8개의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천장 실링 마이크는 DPA 4015 Wide Cardioid 마이크 한 페어를 ORTF로 세팅해 전체 악기 연주음 및 앰비언스를 수음했고, 동시에 스테이지 플로어 전면 에 DPA 4006 Omi 마이크 한 페어를 AB로 세팅해 다른 톤의 악기 연주음 및 앰비언스를 수음했다. 나머지 4개 스팟 마이크는 각 곡의 편성에 따라 종류 및 위치를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악기별 스팟 마이크로는 피아노는 Neumann KM140을 XY로 구성하여, 피아노 중앙 홀 15cm 상단 지점에 마이킹했고, 바이올린과 첼로는 Schoeps MK21 마이크를 이용해 소리가 방사되는 f-hole 방향으로 겨냥해 마이킹했다.



그림 7. 메인 마이크 구성 (천장 실링 MIC, 스테이지 MIC)



그림 8. 바이올린 스팟 마이킹



그림 9. 리허설 중 스폿 마이크 위치 조정 중

리허설 및 본 공연 제작 후기

리허설 도중 메인 감독님의 지시를 받아 스폿 마이크의 위치를 조정할 때에는 집중해서 연주하는 연주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마이크를 조정하느라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매번 새로운 연주자가 리허설을 할 때마다 VIP 좌석이라 할 수 있는 베스트 스폿에 앉아서 연주를 감상해보았다. 최고의 믹스를 위한 공부이기도 했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필자에게는 최고의 음악 감상 시간이었다.

본 공연에 앞서 클래식 FM 생방송 오프닝 시그널과 MC 멘트가 먼저 시작되었다. 클래식 공연장에는 많이 가보았지만 객석에서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은 처음 보아 신기했다. 공연이 진행되는 중간중간 MC의 곡 소개와 연주자 소개, 청중들 박수 소리로 방송이 가득 채워졌다.

이틀간의 공연은 선배 감독님들이 메인 콘솔을 운용하고 마지막 날에는 필자에게도 믹스를 할 기회가 왔다. 떨리는 손으로 메인 마이크와 스폿 마이크,

리버브를 적절히 믹스해 최적의 밸런스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무사히 방송이 끝나고 KBS 콩 어플과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소리가 좋았다는 댓글을 보았을 때 안도의 한숨과 기쁨의 미소가 지어졌다.

출장을 마치며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시원한 평창을 떠나 에어컨이 고장 난 서울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두려웠지만, 알차고 유익한 많은 경험으로 가득했던 이번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내년에는 좀 더 내공을 쌓아 청취자와 시청자들에게 VIP 좌석 같은 좋은 사운드를 선사하리라 다짐해본다. 🎧



그림 10. KBS 춘천총국 중계팀이 제작한 공연 실황 유튜브 스트리밍 화면